1/30/2022 22-06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녹) 연중 제4주일

(Gr)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Today this Scripture passag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루카 4,21 / Lk 4:21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144) La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데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외	김(데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1월 / January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 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시다.

For true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연중 제4주일 (다해) / 4th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 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 리다.

Save us, O Lord our God! And gather us from the nations, to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and make it our glory to praise you.

【제1독서/First Reading】 예레 1,4-5,17-19 / Jer 1:4-5, 17-19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시편 71(70),1-2.3과 4ㄱㄷ.5-6ㄱㄴ.15ㄴㄷ과 17(◎ 15ㄴㄷ) / Ps 71:1-2, 3-4, 5-6, 15-17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I will sing of your salvation.

. [제2독서 / Second Reading] 1코린 12,31-13,13 / 1 Cor 12:31—13:13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루카 4,18 / Lk 4:18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 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The Lord sent me to bring glad tidings to the poor, an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복음 / Gospel】 † 루카 4,21-30 / Lk 4:21-30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시편 31(30),17-18 / Ps 31(30):17-18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Let your face shine on your servant. Save me in your merciful love. O Lord,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for I call on you.

1/30 미사지향 (Mass Intention)

10am

연미사(D): 이미카엘,김율리안나,양헬렌,유시몬 신부님,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이종모 바드리시오,윤애자 마리아,이수쟌,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안요황,박바드리시아,송현섭 아오스딩,송원형 수산나, 권동수 마르티노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박정대 그레고리,박정문 제임스,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김다니엘,이도미틸라,이미자 데레사 & 조앤 가정, 김미카엘라,강마리미카엘라 가정,허선영 도미니코,유치현 요셉, 유성민 안젤라

3pm

생미사(L): Michael & Mary Ann Angel, Mitchell Le Blanc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나는 요란한 장나는 소란한 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If I do not have love, I am a resounding gong or a clashing cymbal. Icor 13,1 빈 꽃병의 말 1 꽃이여 어서 와서 한 송이의 사랑으로 머물러 다오

비어 있음으로 종일토록 너를 그리워할 수 있고 비어 있음으로 너를 안아 볼 수 있는 기쁨에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싶은 나

닦을수록 더 빛나는 고독의 단추를 흰 옷에 달며 지금은 창 밖의 바람소릴 듣고 있다

너를 만나기도 전에 어느새 떠나 보낼 준비를 하는 오늘의 나에게 꽃이여 어서 와서 한 송이의 이별로 꽂혀 다오

-이해인 수녀-

A Word from an Empty Vase 1

You, O flower, come quickly and stay with me as a bouquet of love.

Having emptied myself
I yearn for you
all day long.
And having emptied myself
I joyfully embrace you
singing myself hoarse.

Through the window
I hear the wind gently blowing
while onto my white dress
a solitary, shiny and brightly polished
button is sewn.

Even now before your arrival
I'm preparing for
your impending departure.
Come quickly today
and become fixed within me
as a bouquet of sorrow.

-Sr. Hae In Lee-



교리상식 101

1. 미사는 무엇인가요?

미사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를 최후 만찬 때 제정하셨습니다.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신 다음, 빵과 포도주가 당신 자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거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미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며 같은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과 영적으로하나 되어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양의 혼인 자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는 희생 제사이며, 기념제이고, 감사제로서, 천상 전례와 미리 결합하기에 이 성찬례는 구원의 제사이고,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입니다.

미사는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성목요일 만찬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기념제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의 축성 이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고 고백하며, 이 신앙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Bible Trivia 1001

- 1. What was the name of Jesus' mother?
- 2. What was the name of the garden where Adam and Eve lived?
- 3. With what food did Jesus feed 5,000 people?
- 4. What method did the Romans use to kill Jesus?
- 5. From which part of Adam's body did God create Eve?
- 6. Who, when accused of being with Jesus, lied and said that he did not know him, three times?
- 7. Which creature tricked Eve into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 8. At Christ's crucifixion what did the soldiers place on his head?
- 9. What is the first line of the Lord's Prayer?
- 10. What relationship was Ruth to Naomi?
- 11. Who lied to God when he was asked where his brother was?
- 12. Which Old Testament character showed his faith by being willing to offer his son on an altar to God?

The meaning of the Cross

Not doing things we can do is more challenging than doing things we can not do. Because we tend to evaluate one another from what we have done, are doing, can do, or will do. That seems fair and sound standards. That is true unless we consider the meaning of the Cross. I found the meaning of the Cross from not doing things even we can do well. The meaning of the Cross is perfection comes from imperfection.

Today we read the exciting and fascinating narrative of Jesus in his hometown. He astonished people with his speech in the synagogue. However, they drove him out of the town after they found out that Jesus was the person they used to know well, not someone special but just like one of them. What a dramatic change that happened in a second.

This short moment of the change presents how the world would react to the saviour's coming. The reaction did not happen only once 2,000 years ago. Not only at the time when Jesus visited the hometown but also at this time we live. Not only by the people of his hometown but also by us. Now, Ourselves.

Let us see how Jesus fulfilled God's plan perfectly. It was by not doing things he could do, even if he had to endure others' misunder-standing, that would make him seem a liar or a fraud. When Satan tempted him in the desert, the people of his hometown threatened him, Jesus created perfection from imperfection by not doing things he could do. By doing so, he broke people's standards and converted them upside down. Eventually, he completed this conversion at the Cross by accepting and following God's plan.

십자가의 의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도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무엇을 해 왔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평가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공평하거나 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불완전함에서 오는 완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과 다를 것 없는 그들이 잘 알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오히려 마을 밖으로 몰아내려 합니다. 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 짧은 변화의 순간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세주의 오심에 대응해 왔는지를 대변합니다. 이런 대응은 2,000년 전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만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람들만이 보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이 보이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는지 봅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는 다른 이들의 오해를 감수하시면서 말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고향에서 위협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불완전함으로부터 완전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기준을 부수시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이 전환을 완성하셨습니다.

Fr. Richard Kim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2/4(금/Fri) 8pm
- ◆ 첫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2/5(토/Sat) 10am
- ◆ 설미사(2/1) 2/6일(일)은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예물은 1/23, 1/30 성당 입구에서 접수받습니다. 2/6당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후 조상님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 주님 봉헌 축일 미사 / Presentation of the Lord Mass 일시(Date/Time): 2/2(수/Wed) 10am 이날 축성된 초는 일요일에 성물방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 ◆ 구역장 모임(Territory Leader Meeting) Zoom 일시(Date/Time): 2/2(수/Wed) 8pm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효경: 2/9(수) 오후 8시 통달: 2/10(목) 오후 8시 지식: 2/14(월) 오후 8시 굳셈: 2/17(목) 오후 8시 경외: 2/21(월) 오후 8시 지혜: 2/23(수) 오후 8시

- ◆ 1/4 ~ 2/7 본당 신부님 비자 갱신 및 휴가 이 기간 동안에는 MSC 한국관구에서 김준정 리처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바오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Fr. Paul Kim will be traveling to Korea for visa renewal,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특강

일시: 2/11(금), 2/12(토) 7:30pm-9pm

강사: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천주교 가천 성당 주임신부)

Zoom ID: 828 6629 9516 Passcode# 45663217 문의: 이정화 헬레나(323-899-3202)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영성센터<면형무아 성경공부>Zoom

수강료: 1회 참석할때마다 \$5기부

신청문의: 562-900-8777(장명화 수산나 수녀)

2/15(화) / 2/18(금) 9:30am—11am

수요반 2/16 7:30pm-9pm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구역	교무금	DDF
경외	\$9,000	\$4,000
굳셈	\$10,46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8,340	\$2,510
지혜	\$18,620	\$5,142
통달	\$6,720	\$1,360
효경	\$7,280	\$1,560
기타	\$480	\$480
합계	\$74,900	\$17,612

*** 58가정 신립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 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1/23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797 3pm: \$132
교무금 Envelope	\$2,275 이우춘,박도원,손정도,윤인희,한영자, 유재기,한명숙,안국명
교구발전기금 DDF	\$725 한명숙,이우춘,이명화,한영자

합계

Total \$3,929